

---

『도정 전략과제 및 행정서비스』  
인식 조사 결과보고

---



경 상 북 도  
[정책기획관실]

# 『도정전략과제 및 행정서비스 인식조사』 결과보고

- ❖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도정전략과제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 일반의 인식을 조사하여,
- ❖ 그 결과를 도정업무계획 수립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대책에 적극 반영코자 함.

## 1 조사 개요

### □ 조사목적

- 이번 조사는 경북 전체 23개 시군의 도민을 대상
  - 경북 도정방향 및 발전전략의 인지도 및 필요성
  - 대구경북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
  -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추진시급 사업
  - 현재 경북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
-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도정 발전전략 수립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

### □ 조사방법

- 조사기관 : 「폴스미스리서치」에 용역의뢰
- 기 간 : 2015년 1월 9일 ~ 1월 29일(20일간) (직접면접조사 실시)
- 조사대상 : 만19세이상 경북도민 1,150명
- 표본오차 : 95% 신뢰구간에  $\pm 2.9\%$ 의 표본오차

### □ 주요 조사내용

- 현재 경북에 대한 인식
- 경북 도정방향 및 발전전략 인지도 및 평가
- 대구경북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
- 행정만족도

## 2

## 조사 결과

### 1 경북에 대한 인식

#### □ 경북의 대표 연상

- ① 사과(13.2%)      ② 경주(9.4%)      ③ 독도(8.0%)
- ④ 농업도시(5.7%)      ⑤ 신도청(4.8%)      ⑥ 안동(4.5%)
- ⑦ 포항/포스코(3.9%)      ⑧ 보수적 정서(3.7%)      ⑨ 기타(46.8%)

- ▶ 1,150명의 응답자 중,  
과반수인 '경북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없다' 고 응답
- ▶ 지역 정체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이미지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됨.

#### □ 경북이 경쟁력이 강한 분야

- ① 문화관광(17.7%)      ② 산업(17.3%)      ③ 역사와전통(14.0%)
- ④ 농어업(13.9%)      ⑤ 자연환경(12.1%)      ⑥ 기타(25%)

- ▶ 구미 등 중서부권과 포항 등 동부연안권에서는 산업경쟁력이 각 24.6%와 20.6% 가장 많이 꼽혔던 반면,
- ▶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역사와전통 20.2%, 문화관광 18.9% 등이 가장 많이 꼽혔고,
- ▶ 경산 등 남부권에서는 문화관광 17.7%, 농어업 17.2% 등이 가장 많이 꼽혀 차이를 보였음.

#### □ 경북이 육성·강화해야 할 분야

- ① 복지·안전등 생활환경(20.8%)
- ② 산업경쟁력(20.2%)
- ③ 주거환경(16.9%)

- ▶ 시단위에서는 산업경쟁력이 21.8%로 가장 많이 꼽힌 반면,
- ▶ 군단위에서는 복지/안전등 생활환경이 19.9%로 가장 많아 의견 차이를 보였음.

## □ 2014년에 경북발전에 대한 평가

① 긍정적 평가(31.2%) ② 부정적 평가(14.9%) ③ 평가 유보(53.9%)

- ▶ 2014년 경북발전 평가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31.2%로 부정적 응답 14.9%보다 2배이상 많았으며,
- ▶ 특히, 안동 등 북부권에서 긍정적 이라는 의견이 35.4%로 다른 권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## □ 2015년 경북발전 전망

① 긍정적 평가(40.6%) ② 부정적 평가(13.4%) ③ 평가 유보(46%)

- ▶ 2015년 발전 전망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40.6%로 더욱 많아짐
- ▶ 특히, 신도청 이전 예정지인 안동과 예천에서 긍정적 전망이 50.0%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## ② 경북 도정방향 및 발전전략 인지도 및 평가

### □ 우선해야 할 경북 도정방향

- ① 경제경북 - 일자리(31.2%)
- ② 복지경북 - 사회안전망, 보건건강(14.9%)
- ③ 균형발전 - 지역특성별발전(14.3%)

- ▶ 우선해야 할 경북 도정방향으로 경제경북(일자리) 31.2%, 복지경북 (사회안전망, 보건건강) 14.9%, 균형발전 14.3% 등의 순으로 많이 꼽힘
- ▶ 모든 지역과 성, 연령에서 모두 경제경북(일자리)가 가장 많이 꼽혔음.

### □ 10대 전략프로젝트 사업인지도

- ① 민족의 섬 울릉도·독도 62.3%
- ②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43.7%
- ③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41.7%
- ④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33.3%



## □ 도청 이전 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권역

- ① 영남권(42.3%)    ② 수도권(23.2%)
- ③ 충청권(13.7%)    ④ 호남권(10.7%)

- ▶ 도청 이전 이후, 경상북도가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도로는 영남권(42.3%)이 가장 많이 꼽혔고,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23.2%였음.
- ▶ 다만, 구미등 중서권에서 충청권을 꼽은 응답이 21.1%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.

## 4 시·군 행정 만족도

### □ 행정 전반 만족도

- ① 만족(25.3%)    ② 불만족(14.8%)    ③ 기타(59.9%)

- ▶ 우선해야 할 경북 도정방향으로 경제경북(일자리) 31.2%, 복지경북(사회안전망, 보건건강) 14.9%, 균형발전 14.3% 등의 순으로 많이 꼽힘.
- ▶ 모든 지역과 성, 연령에서 모두 경제경북(일자리)가 가장 많이 꼽혔음.

### □ 항목별 만족도

#### 【상위 3개 항목】

- ① 상하수도 시설(63.0점)
- ② 생활 쓰레기 처리 및 수거(58.2점)
- ③ 도로, 가로수 등 미화(57.3점)

#### 【하위 3개 항목】

- ① 공무원 친절도(46.9점)
- ② 공무원 청렴도(45.8점)
- ③ 주차공간 확충(40.7점)

- ▶ 행정항목별 만족도는 상하수도 시설(63.0점)이 가장 높았고,
- ▶ 주차공간 확충(40.7점), 공무원 청렴도(45.8점), 공무원 친절도(46.9점) 등은 50점이하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음.

## 5 경북 발전을 위한 의견

<개방형 응답 502개>	(%)	주요 내용
공무원태도 및 친절도 향상	19.7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와 친절도 개선 요구</li> <li>-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필요</li> <li>- 전시·탁상행정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</li> </ul>
도로, 대중교통 등 불편 해소	12.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 정비 및 도로망 확충</li> <li>- 대중교통 불편(배차시간 단축, 노선개편 등 필요.)</li> <li>- 영양, 울진 : 도로망 정비 및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음</li> <li>- 울릉 : 해상교통여건 개선필요(정기선 운행 등)</li> </ul>
문화시설 등 여가생활여건 개선	10.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화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확충</li> <li>- 문화생활을 위해 대구 등 타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 해소</li> <li>- 상주, 의성, 영양, 고령, 성주, 칠곡 : 체육시설 확충</li> </ul>
주차공간부족 해소	9.6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차시설 확충(공영주차장, 유료주차장 확대)</li> <li>-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</li> </ul>
지역 균형발전 및 발전정체 해결	9.4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균형발전 요구</li> <li>- 지역발전 정체 우려</li> <li>- 지역발전을 위해 인구증가 필요.</li> </ul>
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	6.4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자리 창출</li> <li>-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젊은층 이탈 우려</li> <li>- 구미 : 공단내 기업 수도권 유출 우려</li> </ul>
복지 확대	5.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</li> <li>- 어린이, 청소년 놀이시설 부족</li> </ul>
의료시설 확충	4.6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시설 확충 필요</li> <li>- 울릉 : 도서지역의 특성상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</li> </ul>
치안불안 해소	3.2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로등 및 방범용 CCTV설치 요구.</li> </ul>
문화관광활성화 및 개선	2.8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필요한 축제 지양</li> <li>- 축제를 통한 실질적 수익성 강화</li> <li>- 기반시설(숙소 등) 확충 필요</li> <li>- 지역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필요</li> <li>- 경주 : 문화재 때문에 받는 제약이 너무 많음.</li> </ul>
교육여건 개선	2.6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의 질 향상</li> <li>- 대학유치</li> <li>- 학업여건개선</li> <li>- 유아교육시설 발전</li> </ul>
도청 이전	1.6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외지역 배려.</li> <li>- 이전지 중심으로 교통망 확충</li> <li>- 신도시 개발</li> <li>- 이전 중단</li> </ul>
환경오염 방지	1.4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천 유해식물 제거</li> <li>- 환경법규 개선 필요</li> <li>- 불법소각 단속 및 계몽</li> </ul>
시민의식 개선	1.2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변 교육환경 개선</li> </ul>
농업 지원	1.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산물 가격 안정화(폭등, 폭락방지)</li> <li>- 정부나 농협에서 판로개척</li> </ul>
재래시장활성화 및 개선	0.8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래시장 활성화</li> </ul>
주거지 안정화	0.8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땅값, 집값 안정</li> <li>- 울릉 :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</li> </ul>
기타	7.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문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</li> <li>- 지역 통합</li> </ul>

### 3

## 조사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

### □ 권역별 맞춤형 홍보 강화로 전략사업 추진력 제고 필요

-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보면, '백두대간·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'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18.9%에 머무는 것을 비롯하여, 5개 사업이 인지도가 30%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
- 전략사업별로 연관이 있는 지역별 인지도를 보더라도, 안동 등 북부권에서 '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' 인지도가 43.2%, 포항 등 동부연안권에서 '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' 인지도가 43.9% 등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.
- 따라서, 전략사업별로 연관성이 높은 권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여, 전략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를 높여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.

### □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의 다양화 필요

-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84.9%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또한 81.8%가 경북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음.
- 구체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'대구경북 교통망 확충', '대구경북 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', '지역균형발전 공동 노력', '대구경북 도농상생 교류협력' 등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'대구경북 정체성 확립'에 대한 필요성도 높다는 의견을 보여, 정서적 동질감을 높이는 상생협력 사업도 요구되고 있음.

## □ 공무원 의식 개혁 등이 시급

- 도민들이 장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'경제활성화'였으나,
-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의견은  
'공무원태도 및 친절도 향상', '도로, 대중교통 등 불편 해소',  
'문화시설 등 여가생활 여건 개선', '주차공간부족 해소' 등이었고,
- 특히,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의견이 많고, 친절성과 청렴도에 대한 평가도 매우 낮았음.